

Issue Comment

2019. 03. 06

운송(항공)

LCC 신규 면허 발급: 핵심은 거점공항 3년 유지 의무

● 운송/자동차부품

Analyst 이종현
02. 6098-6654
jonghyun_lee@meritz.co.kr

국토부, 시장의 예상(1-2개 업체)을 넘는 3개 업체에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거점공항: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음. 애초에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에어필립을 제외하고 모든 여객항공사가 면허를 취득한 셈. 시장의 예상 (1-2개 업체)을 넘는 면허발급으로 LCC 주가는 장중 급락.

핵심은 거점공항 3년 유지 의무 → 상장사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상장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는 판단. 근거는 거점공항 3년 유지의무. 각 항공사는 향후 3년간 각자의 거점공항발 노선만 취항이 가능.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20년 하반기부터 취항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 2020년 하반기까지 인천공항에 경쟁력 있는 슬랫이 남아있을 가능성 없으므로 장기적 영향도 없음.

플라이강원은 향후 3년 간 양양발 노선만 취항이 가능. 가장 공격적으로 노선을 확대하지만(국제선 25개 노선) 가장 수요 기반이 취약한(때문에 플라이강원은 인바운드 수요를 강조했다는 판단) 외진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에 기존 상장사 실적에 미칠 영향 없음. 기존 상장사들의 양양공항 Exposure는 없음. 보수적으로 양양발 신규 노선이 인천·김포발 수요 빼앗아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 존재할 수 있지만, 1) 빼앗아 올 수 있는 노선이었다면 일찌감치 기존 LCC들이 취항을 했을 것이며 2) 이미 인천·김포는 슬랫포화로 공급자 우위인 공항이라 수요가 소폭 감소한다 한들 L/F나 Yield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음.

(표2 참고)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플라이강원보다는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 특히나 초저가운임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발 노선들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기존 상장사들의 청주공항 Exposure는 제주항공 0.7%, 대한항공 0.1%, 아시아나 0.1% (표2 참고). Exposure 극히 낮아 실적에 미칠 영향 없음. 만약 청주공항이 대구공항 수요를 일부 흡수한다면 티웨이항공 또는 에어부산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존재할 수 있지만, 1) 경쟁력 있는 시간대의 슬랫은 이미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2) 가장 적은 기재도입계획 (22년까지 6대)을 밝혔으며, 3) 이마저도 여력기를 1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가용한 기재는 19년 2대, 20년 4대, 22년 5대에 불과. 상장사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는 판단.

표1 신규면허발급 3사 향후 사업계획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거점공항	양양	청주	인천
자본금 (억원)	400	550	370
자본금 (억원) (LOI·LOC포함시)	1,140	650	2,000
특징	국내·외 관광사와 연계	초저가 운임	중장거리항공사
도입예정기재 (대)	B737-800 (189석)	A320급 (180석)	22년까지 B787-900 (310석)
19년 보유기재수	3	3	3
20년 보유기재수	7	5	5
21년 보유기재수	9	6	7
취항노선	국내선 3개, 국제선 25개 국내(울산, 광주, 김포)	국제선 11개 동북아(나리타, 나고야, 기타큐슈, 칭다오, 타이페이) 동남아(코타키나발루, 클라크필드, 다낭)	국제선 9개 동북아(하이퐁) 동남아(하이퐁)
2H19	동북아(마카오, 타이페이, 가오슝, 타이중), 동남아(코타키나발루, 클라크필드, 다낭)	(나리타, 나고야, 기타큐슈, 칭다오, 타이페이)	
1H20	동북아(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동남아(하노이, 호치민)		
2H20	동북아(히로시마, 웨이하이, 엔타이, 산야, 지난, 하이커우) 동남아(나트랑)	동북아(하코다테, 마카오) 동남아(하노이)	동북아(오사카, 나리타, 홍콩) 동남아(하노이, 호치민)
1H21	동남아(시엠립, 칼리보)		미국(LA)
2H21	동남아(세부)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동북아(하이커우) 동남아(가오슝)	미국(산호세)
1H22	동남아(하이퐁) 러시아(하바롭스크)		미국(호놀룰루)
2H22			캐나다(밴쿠버)

자료: 국토교통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18년 국제공항별/항공사별 여객수 (왕복 기준) - 상장사 모두 실적에서 청주, 양양공항 차지하는 비중 미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TOTAL
공항별/항공사별 여객수									
대한항공	17,755,258	1,213,995	1,450,138	190,416	25,664	10,837	3,342	505	20,650,155
아시아나	12,311,259	1,177,543	392,329	0	18,837	0	0	122	13,900,090
제주항공	5,521,533	255,011	1,276,483	32,848	52,663	49,472	168,159	0	7,356,169
진에어	4,357,286	76	974,726	139,269	0	0	0	0	5,471,357
에어부산	0	1,245	2,952,809	0	0	679,842	0	0	3,633,896
에어서울	1,727,681	158	0	0	193	0	0	0	1,728,032
티웨이항공	2,537,978	71,739	231,929	168,201	0	1,130,822	60,789	0	4,201,458
이스타	2,241,671	57,335	337,212	110,809	140,930	0	0	0	2,887,957
기타외항사	21,807,097	1,513,194	2,251,253	1,257,935	79,802	177,652	94,232	36,906	27,218,071
TOTAL	68,259,763	4,290,296	9,866,879	1,899,478	318,089	2,048,625	326,522	37,533	87,047,185
공항별 항공사별 비중									
대한항공	26.0	28.3	14.7	10.0	8.1	0.5	1.0	1.3	23.7
아시아나	18.0	27.4	4.0	0.0	5.9	0.0	0.0	0.3	16.0
제주항공	8.1	5.9	12.9	1.7	16.6	2.4	51.5	0.0	8.5
진에어	6.4	0.0	9.9	7.3	0.0	0.0	0.0	0.0	6.3
에어부산	0.0	0.0	29.9	0.0	0.0	33.2	0.0	0.0	4.2
에어서울	2.5	0.0	0.0	0.0	0.1	0.0	0.0	0.0	2.0
티웨이항공	3.7	1.7	2.4	8.9	0.0	55.2	18.6	0.0	4.8
이스타	3.3	1.3	3.4	5.8	44.3	0.0	0.0	0.0	3.3
기타외항사	31.9	35.3	22.8	66.2	25.1	8.7	28.9	98.3	31.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항공사별 공항별 비중									
대한항공	86.0	5.9	7.0	0.9	0.1	0.1	0.0	0.0	100.0
아시아나	88.6	8.5	2.8	0.0	0.1	0.0	0.0	0.0	100.0
제주항공	75.1	3.5	17.4	0.4	0.7	0.7	2.3	0.0	100.0
진에어	79.6	0.0	17.8	2.5	0.0	0.0	0.0	0.0	100.0
에어부산	0.0	0.0	81.3	0.0	0.0	18.7	0.0	0.0	100.0
에어서울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티웨이항공	60.4	1.7	5.5	4.0	0.0	26.9	1.4	0.0	100.0
이스타	77.6	2.0	11.7	3.8	4.9	0.0	0.0	0.0	100.0
기타외항사	80.1	5.6	8.3	4.6	0.3	0.7	0.3	0.1	100.0
TOTAL	78.4	4.9	11.3	2.2	0.4	2.4	0.4	0.0	100.0

자료: 항공정보포털,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종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